



“열사 정신으로 현장조직력 복원하자”

배달호 두산중공업지회 열사 18주기 추모제 ... “해고자 김창근 반드시 복직돼야”

“배달호 열사와 수많은 노동 열사들이 산 자에게 바랐던 것은 단결 투쟁이었습니다.”

두산자본에 항거해 산화한 배달호 열사 18주기 추모제에서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이 호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열사정신계승위원회는 1월 8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동열사 배달호 18주기 추모제’ 를 열었다.

배달호 열사는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사측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산화했다. 두산 자본은 2000년 한국중공업 인수 뒤 1,100명을 구조조정했고, 2001년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저항했다. 2002년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47일 동안 파업을 전개했다. 두산은 노동자 18명을 해고하고, 89명을 징계했다.

배달호 열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02년 12월 26일 복직했으나, 자본은 배달호 조합원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1년에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전국에서 고용안정을 울부짖는 노동 천대의 나라에서 배달호 열사가 염원한 세상은 멀게만 느껴진다” 라고 토로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모이면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단결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무너지는 현장조직력을 복원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은 배달호 열사가 남긴 마지막

뜻이다.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김창근 동지는 반드시 복직돼야 한다” 라며 “한국산연과 지에이 산업 노동자들도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어느 한구석 희망을 품기 어렵다. 정권과 자본은 산업재편에 들어가며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불안을 강요할 것” 이라며 “열사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투쟁을 시작하자” 라고 강조했다.